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Slot, and Description.

# 대학은 왜 영어 강의에 집착하나

## 오늘 밤 10시 KBS '추적 60분' 대학가 영어강의 열풍·문제점 조망

전체 강의의 67%를 영어로 하는 카이스트를 필두로 대학들이 앞다퉀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영어 강의는 대학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틀과 달리 한국어 수업하거나 전공수업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KBS 1TV '추적60분'은 9일 오후 10시 '캠퍼스는 영어마을, 아 유 오케이?(Are You OK?)'를 통해 대학가에 불고 있는 영어강의 열풍과 문제점을 조망한다. 제작진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어 강의를 둘러싼 카이스트 내부의 엇갈린 의견을 공개한다.

제작진이 취재 도중 만난 한 대학생은 "실제로 영어 강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수업 강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교수님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죠"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의 이면에는 대학종합평가 순위와 당국의 지원 등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언론사에서 대학평가 할 때도 영어 강의 국제화 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대학에 어느 정도 영어 강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라고 고백했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만큼 영어에 관심이 많은 일본을 찾아 사립명문 와세다대의 영어 강의 현장을 소개한다. 이 대학에서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영어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진은 "일본의 대학들이 우리와 달리 무조건 영어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여 년 전 갖춰진 번역시스템 덕분"이라고 전한다.



제18회 광주전남 지역비독대회. 형세에 따른 선택. 개인전 준결승 1국 4보 (61~78). White: 박광주 5단 (포스코), Black: 고재영 5단 (주)송림.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commentary.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8월 21일 丁亥). 운세 조항: 36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보라, 48년생 바쁜 손 놓고 뒤를 돌아보라, 60년생 새로운 삶의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 72년생 새로운 인연은 결국 허황된 상처만 남긴다, 84년생 생소한 길을 만난 듯하니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EBS 플러스1 and 플러스2 프로그램 목록. Includes titles like '영어로 배우는',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2 퍼펙트 체크업'.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It serves her right' (그래도 싸지) with English and Korean dialogues. 2. '年(とし)より老(ふ)けて見えますね' (나이 들어 보이네요) with Japanese and Korean dialogues. 3. '考不見面, 感情就淡了'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with Chinese and Korean dialogues. 4. '指鹿為馬 (지록위마)' (가리킬 지, 사슴 목, 하/할 위, 말 마) with Chinese and Korean dialogues.